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 한국과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 **

A Study on Children's Stress, Coping, and Motivation. *

- Compare with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 **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아동벤처산업학전공
부교수 박성옥

Dept. of Venture Business for Children, Taejon University
Associate prof. : Park, Seong-Ok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II. 이론적 배경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how different the belief, social support, stress, coping and motivation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children. The data was collected from 157 Korean and 114 American students (5-8th grad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Korean children's other dependency and pessimism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American children. Also Korean children perceived higher than American children in the control-pressure stress and self-respect stress.
2. Pessimism was observed the highest effect factor on Korean children's stress.
3. Korean students tried various coping under the relationship stress.
4. Problem oriented coping was found as an effective coping in Korean children. But the pursuit of support was found as an effective coping in American children.

* 본 연구는 1999년도 LG 연합재단의 해외연구교수 학술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아동과 청년기를 구분 짓는 연령기준은 일반적으로 12-13세에서 24-25세까지로 보고 있으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두 시기에 걸친 연구대상을 구분하여 명명하기 보다 '아동'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주제어(Key Words): 신념(belief),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스트레스(stress), 대처행동(coping), 성취 동기(motivation)

I. 서 론

최근 스트레스를 단순히 외부적인 것이나 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아닌,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 관계로 보는 관점에 입각하여 유기체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윤혜정, 1992, 재인용). 생태학적 관점이 대두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특성보다는 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 사건 등 스트레스를 야기 하는 근원과 그 대처양식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단히 복잡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기치 못한 자극이나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아동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아동은 성인에 비해 인지적 언어적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주어지는 압력을 조정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압박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Honing, 1986). 아동기의 스트레스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정서적 발달에 누적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면서, 아동의 잠재력을 상실케 하므로(Glaser, 1982), 조기에 적절히 중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기의 스트레스 본질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스트레스 경험이 아동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몇 년간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김재환, 1995; 신은영, 김경연, 1996; 정승희, 정영숙, 1996; 한미현, 1996; 한미현, 유미진, 1993). 그러나 이들 연구가 갖는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요구와 압력은 그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에 아동이 겪는 스트레스도 사회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생태학적 관점에 따르면 해로운 환경에 직면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장애의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는 가중된 환경적 요구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Dubois, Felner, Brand, Adan, & Evans, 1992)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행동을 비교연구함으로써 아동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긍정적인 적응 행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나 사회, 환경적 차이를 고려한 비교문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지금수, 이영환, 박성옥과 한중혜(1997), 이영환, 한중혜와 박성옥(1998)이 한국과 미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만을 비교 분석하였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사건의 평가 및 대처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신념) 및 환경적 요인(사회적지지) 등 배경적인 요인의 영향까지 포함하여 한국과 미국 아동을 대상으로 비교문화적 접근으로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스트레스 인지 모델에서는 스트레스가 지각된 후 사용되는 대처행동이 중요시되는데 이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행동이 긍정적인 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지각한 아동의 대처행동에 대한 국내연구는(송의열, 1995; 이소은, 1990)는 극히 미흡한 실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처행동이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아동이 사용하는 대처행동의 효율성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이현정(1997)과 신은영(1998)의 연구에서는 대처행동의 효율성을 부정적인 적응인 문제행동이나 우울과의 관계로 규명하고 있다.

반면 박선영(1993)과 송의열(1995)은 스트레스와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 등의 아동의 적응행동과의 관계를 매개하는 주요변인으로 대처행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즉 어떤 사람들은 높은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해도 비교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통제할 수 없거나, 다루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체적 증상이나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는다.(박선영, 1993)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보이는지의 개념을 포함하여야 적응행동과의 관계가 보다 잘 이해될 것이다. 성취동기는 개인이 어떤 목표를 향한 행동을 일으키고 지속시키는 원동력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욕(이상희, 1994. 재인용)으로 현대 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적응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처행동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동의 어떤 대처행동이 성취동기와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과정에 있는 한국과 미국 두 문화권의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 개인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의 문화적 차이를 살펴보고, 둘째,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개인적 신념,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며, 셋째,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긍정적인 적응으로 성취동기를 높이는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개인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성취동기는 문화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문화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문화에 따라 아동의 스트레스 유형과 대처행동간에는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 〈연구문제 4〉 성취동기에 대한 대처행동의 설명력

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신념과 스트레스

개인의 신념 중에서 통제신념(Lazarus & Folkman, 1984; Taylor & Brow, 1988), 낙천성(Scheier & Carver, 1992; Scheier, Matthew, Owens, Magovern, Lefebvre, Abbott, & Carver, 1989), 완벽주의(Hewitt & Flett, 1993) 등은 심리적 복지와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중요한 변인이 되어왔다. Ellis (1962)는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적 결과는 어떤 사건 그 자체에 의해서라기 보다 그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믿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신념이 기저가 되어 위협의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신념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 현상은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인지이론가들은 긍정적 또는 합리적 신념에 비해 역기능적 신념 또는 불합리적 신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Beck, 1976; Ellis, 1962; Hewitt & Flett, 1993). Schwartz(1986)는 스트레스와 대처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합리적 신념이 대처를 촉진시키기보다는 불합리적 신념이 대처를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인의 불합리한 신념이 사건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신념 체계를 변환시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고 다루는데 있어서 신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념과 관련된 아동 스트레스 연구는 주로 통제 신념에 관한 연구(고현정, 1990; Riordan, 1992)이다. 최근 신은영(1998)은 아동의 신념체계도 복잡하며 동시에 상반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외 통제신념이라는 단일차원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려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아동의 신념을 완벽주의, 자기 통제감 상실, 타인

인정집착성, 비관주의 내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바, 우리 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평가에 가장 폭넓게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타인인정 집착성이라고 밝히고 있다. 신은영(1998)은 이런 결과를 체면을 중시하며,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성을 띤 우리 문화(윤태립, 1969; 정순목, 1980)특성이 사회전반을 통해 아동의 신념체계에도 스며들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요 특성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또한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변인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스트레스로 평가를 내릴 때와 이 평가에 따라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신은영, 1998, 재인용). 즉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누군가가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지각은 개인의 지각된 대처 능력을 높여줌으로써 어떤 사건이 매우 위협적이라는 평가를 내리지 않게 한다. 둘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지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서 스트레스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국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유발 요인의 유해 가능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친구 및 가족지지의 효과를 보고한 Kleckler(신은영, 1998, 재인용)는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언급하였으며, Cohen과 Hoberman(1983)에 의하면 부정적 생활 사건을 경험할 때 지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Garmagy, Devine과 Tellegen(신은영, 1998, 재인용)도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에서도 잘 견디어 내는 아동과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부모의 지지를 통해 스트레스의 부적영향이 완화되며 적응적인 대처행동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하고 있다.

한편 Wilcox와 Vernberg(1985)는 스트레스 상황이 요구하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적합할 때 사회적 지지가 가장 효과적 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신은영(1998)은 대인관계, 통제강요, 자존심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스트레스로 평가하는데 각각 어떤 사회적 지지원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본 결과, 가족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대인관계 사건을 덜 스트레스로 평가하였고, 또 자존심에 관련된 사건과 가정 환경 관련 사건을 스트레스로 평가하는데는 교사 지지가 중요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1960년대 이후 스트레스가 현대생활의 불가피한 측면으로 인식되면서 적응결과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대처행동이라는 인식이 커져왔다. 대처행동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된 주된 이유는 스트레스 자체가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행동에 매개되어 개인의 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윤재은, 1994, 재인용)는 생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처행동에 관심을 갖는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며, 실패하면 부적응을 가져온다고 하면서 대처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oos & Billings, 1982).

이런 대처행동은 학자들의 견해(Folkman, 1984; Pearlin & Schooler, 1978)에 따라 분류를 달리하고 있으나, Ayer(1991)는 9세와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 회피, 기분전환, 지지추구 네 차원의 대처행동이 아동의 대처행동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은영(1998)은 이러한 분류에 의해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대인관계나 통제강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아동들은 회피, 기분전환, 지지추구 등 다양한 대처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자존심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회피적 대처를, 가정환경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 지지추구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처립 스트레스

상황에 따라 대처행동이 달라진다는 견해를 뒷받침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시험스트레스와 대처행동과의 관계연구에서 시험직전에는 문제중심대처를 하지만 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는 감정중심 대처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윤미경, 1987). Compas와 그의 동료들(1988)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행동, 대인관계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정서 지향적 대처행동을 보다 많이 사용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소은(1990)도 학업스트레스와 신체스트레스에 대해서는 문제 중심적 대처, 대인스트레스에서는 정서 중심적 대처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4. 대처행동과 성취동기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다루는데 있어 어떤 대처행동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지금까지 개인의 적응에 대한 대처행동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신은영, 1998; Felton & Reverson, 1984; Kurdek & Sinclair, 1988)의 결과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문제 중심적 대처 또는 적극적 대처가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적응과의 관계를 대처행동의 중재과정으로 규명하려고 시도한 국·내외 많은 연구들(신은영, 1998; 윤재은, 1994; 한미현, 1996; Cohen & Lazarus, 1983; Compas, 1987)은 신체질병, 행동문제, 사기저하, 우울등의 주로 부적응 행동측면만을 다루어 왔다.

반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성취동기라는 긍정적인 행동특성 측면에서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성취동기는 현대심리학에서 학업의 성취와 사회생활에서의 성공여부에는 물론 국가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장애물은 극복하고, 어려운 일을 열심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욕 또는 경향성이라 정의되며, 이것이 타인과의 경쟁, 훌륭한 업적, 장기 목표에의 자기 관여와 관련되어 감정을 유발시키는 것이라고

한다(이상희, 1994. 재인용). 따라서 성취동기는 현대인의 복잡한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트레스 상황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행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국내연구로 김해옥(1989)은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연구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하는 아동일수록 학업에 대한 성취 동기가 높은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박선영(1993)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적 대처 행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문제상황에 대해 분석을 한다든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욕구와 도전성 등의 성취행동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현정(1997)은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고, 학업성취와도 높은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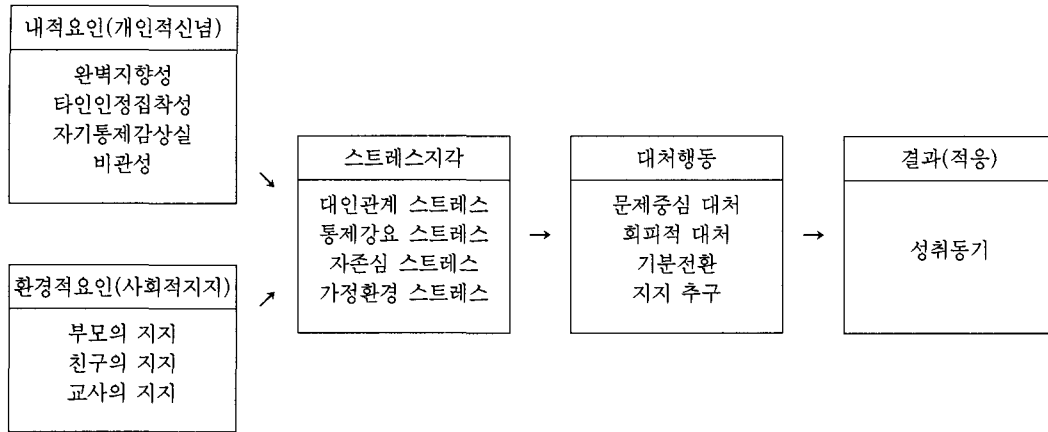
1.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연구문제에 따른 본 연구의 설명적 개념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대상 선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먼저 미국 Colorado주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와 중학교 (1, 2학년)¹⁾를 방문하여 먼저 학교장과 접촉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알리고 조사 허락을 받았다. 그 다음 학생과 부모의 동의를 거쳐 2000년 3월 12일에서 6월 3일 사이 학급교사에 의해 질문지를 배부, 회수

1)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 등을 비교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에 해당되는 11~14세로 선정하였다.



〈그림 1〉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적 개념 모형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한 국		미 국	
		N	%	N	%
성	남	84	53.5	44	38.6
	여	73	46.5	70	61.4
학년	초등 5, 6학년	71	45.2	49	43.0
	중 1, 2학년	86	54.8	65	57.0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때 미국내 조사지역으로 선정된 6개 학교가 속한 학군이 비교적 중상류층²⁾에 속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미국 조사지역과 비교적 유사하게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대덕 연구단지의 2개 초등학교 5, 6학년과 2개 중학교 1, 2학년을 임의로 선정하여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신은영(1998)이 개발한 척도가 사용되었다. 이 척도는 완벽지향성(7문항), 타인인정 집착성(6문항), 자기통제감 상실(6문

항), 비관성(6문항)의 4개 하위영역(총25개 문항)과 4점 Likert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신념이 더 강한 것을 의미한다. 각 영역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α 계수는 .78, .68, .69, .75이다.

둘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Harter(1985)의 'People in My Lif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세 하위 영역인 부모, 친구, 교사 지지에 대해 각 6개 문항씩 총 18개 문항이 조사되었으며, 응답 방식은 먼저 양자 택일을 한 후 정말 그런지 혹은 그저 그런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채점은 1에서 4로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각 영역의 Cronbach α 계수는 .68, .84, .84이다.

셋째,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은영(1998)이 개발한 '아동의 스트레스 사건평가와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가 사용되었다. 아동의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대인관계 사건(8문항), 통제강요 사건(7문항), 자존심 사건(8문항), 가정환경 사

2) 조사지역 학군의 특성을 중상류층으로 판단한 근거는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he Advancement of Student Learning'에서 조사지역 학교 특성을 중상류층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의한 것임.

건(8문항)에 대해 걱정되거나 슬프거나 화가 나는 부정 감정의 강도를 매우 그렇다(2점), 그렇다(1점), 아니다(0점)로 반응하게 되어있다. 스트레스 지각 수준은 이렇게 사건을 평가한 강도와 사건의 경험 빈도를 자주(2점), 가끔(1점), 없다(0점)으로 평정하여 곱하여 얻어진 값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각 영역의 Cronbach α 계수는 .64, .79, .77, .66이다.

넷째, 대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신은영(1998)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중심 대처(4문항), 회피적 대처(5문항), 기분전환(4문항), 지지추구(5문항) 4개의 하위영역 (총 18개 문항)과 4점 Likert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각 영역의 Cronbach의 α 계수는 .86, .90, .91, .94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성취동기는 Harter(1980)의 'A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과 채점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사회적지지 측정과 동일하다. Cronbach의 α 계수는 .83이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연구문제 1>의 개인적 신념, 사회적 지지 및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성취동기가 문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 2>의 아동의 스트레스 지각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문제 3>의 스트레스 유형별 대처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r을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4>의 스트레스 유형별 대처행동에 따른 성취동기를 살펴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개인적 신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성취동기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모델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의 개인적 신념,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성취동기에 대해 한국아동과 미국 아동이 지각하는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개인적 신념 변인에서 한국아동의 경우 타인인정 집착성과 비관성이 미국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며, 미국아동의 경우는 자아통제감상실이 한국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지지 변인에서는 미국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가족지지나 교사지지의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지각 수준을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는 한국아동의 경우는 통제강요 스트레스, 자존심 스트레스를, 미국아동의 경우는 대인관계 스트레스, 가정환경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행동에서는 미국아동이 한국아동에 비해 회피적 대처와 지지추구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취동기 변인은 두 문화권의 아동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스트레스 유형별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적 신념(완벽지향성, 타인인정 집착성, 자기통제감 상실, 비관성)과 사회적 지지(가족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스트레스 사건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스트레스 유형별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과정의 위반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Durbin-Watson 계수(d)를 산출한 결과 거의 모두 2에 근접하고 있었으므로, 잔차간의 상관관이 없어 회

〈표 2〉 스트레스, 신념, 사회적 지지, 대처행동과 성취동기에서의 차이 검증

변인	내용	한국		미국		t값
		M	SD	M	SD	
개인적 신념	완벽지향성	2.36	.64	2.24	.56	-1.60
	타인인정집착성	2.25	.61	2.03	.54	-3.01**
	자기통제감상실	1.76	.47	1.88	.37	2.20*
	비관성	2.16	.68	1.77	.50	-5.07****
사회적 지지	가족 지지	3.18	.51	3.58	.52	6.19****
	친구 지지	3.42	.62	3.40	.71	-.27
	교사 지지	3.01	.63	3.32	.62	3.90****
스트레스	통제강요	1.20	.66	1.02	.56	-2.23*
	대인관계	.62	.69	.92	.60	3.57****
	자존심	1.14	.73	.96	.53	-2.13*
	가정환경	.50	.51	.64	.52	2.19*
대처행동	문제중심 대처	2.59	.60	2.69	.44	1.50
	회피적 대처	2.23	.59	2.43	.52	2.69**
	기분전환	1.88	.61	1.98	.50	1.42
	지지추구	2.05	.70	2.55	.70	5.51****
성취동기	성취동기	2.89	.34	2.89	.41	-.05

*p<.05 **p<.01 ****p<.0001

귀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제강요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한국과 미국아동의 경우 각각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한국아동의 경우 통제강요 스트레스 사건 평가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개인적 신념 요인은 타인인정 집착성($\beta=.19$)과 비관성($\beta=.36$)인데 비해 미국아동의 경우는 완벽지향성($\beta=-.21$)

〈표 3〉 통제강요 스트레스에 대한 신념 및 사회적 지지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한국				미국			
	B	β	R ²	F	B	β	R ²	F
완벽지향성	-.17	-.16	.38	9.61****	-.19	-.21*	.29	4.35***
타인인정 집착성	.21	.19*			.11	.11		
자기통제감 상실	-.14	-.10			.20	.13		
비관성	.36	.36***			.05	.04		
가족 지지	-.36	-.26**			-.30	-.25*		
친구 지지	.06	.06			-.07	-.09		
교사 지지	-.26	-.25**			-.19	-.20*		
상수	2.34				2.80			
Durbin-Watson 계수	1.85				1.73			

*p<.05 **p<.01 ***p<.001 ****p<.0001

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 요인은 가족($\beta=-.26, -.25$)과 교사의 지지($\beta=-.25, -.20$) 두 변인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한국 아동의 경우, 위의 내변인(타인인정 집착성, 비관성, 가족지지, 교사지지)이 통제강요와 관련된 사건을 스트레스로 평가케하는데 있어 이들의 설명변량은 약 38%였으며, 미국 아동의 경우는 세변인(완벽지향성, 가족지지, 교사지지)의 설명변량이 29%로 나타났다. 즉, 한국아동의 경우 타인인정 집착성과 비관성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교사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통제강요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지각하였고, 반면 미국아동의 경우는 완벽지향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 교사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통제강요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지각하였다.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결과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한국아동과 미국아동 모두 타인인정 집착성(한국 $\beta=.38$, 미국 $\beta=.28$)요인이 대인관계 스트레스 사건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타인인정 집착성 수준이 높은 아동일수록 대인관계 사건을 더욱 스트레스로 평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은영(1998)과 Burns(198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또

다른 요인은 두 문화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즉 한국아동의 경우는 비관성 수준이 높을수록($\beta=.22$), 미국아동은 친구의 지지가 낮다고 인식할수록($\beta=-.19$)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 아동의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3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17%이며, 미국 아동의 경우는 2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력이 24%로 나타났다.

셋째, 자존심 스트레스 사건 평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한국아동의 경우는 비관성 수준이 높을수록($\beta=.36$), 미국아동의 경우는 자기통제감 상실 수준이 높을수록 ($\beta=.26$) 자존심과 관련된 사건을 더욱 스트레스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아동의 경우 자존심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비관성 변인의 설명력은 35%이며, 미국 아동의 경우 자기 통제감 상실 변인의 설명력은 15%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스트레스 사건 평가에 대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지지 영향력을 알아보기가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가정환경 스트레스 사건 평가에 대해서 한국아동의 경우 비관성($\beta=.49$), 가족지지($\beta=-.22$)가 유의한 설명요인으로 비관성수준이 높

<표 4>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신념 및 사회적 지지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한 국				미 국			
	B	β	R ²	F	B	β	R ²	F
완벽지향성	-.23	-.18**	.17	3.22**	-.12	-.12	.24	3.34**
타인인정 집착성	.46	.38***			.29	.28*		
자기통제감 상실	-.25	-.16			.14	.09		
비관성	.24	.22*			.11	.09		
가족 지지	.08	.05			-.07	-.06		
친구 지지	-.06	-.05			-.16	-.19*		
교사 지지	-.04	-.04			-.09	-.09		
상수		.42				.124		
Durbin-Watson 계수		2.03				1.74		

*p<.05 **p<.01 ***p<.001

〈표 5〉 자존심 스트레스에 대한 신념 및 사회적 지지의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한 국				미 국			
	B	β	R ²	F	B	β	R ²	F
완벽지향성	.12	.10	.35	7.74****	-.09	-.11	.15	1.92*
타인인정집착성	.16	.13			.06	.06		
자기통제감상실	-.13	-.09			.36	.26*		
비관성	.39	.36***			.09	.08		
가족 지지	.11	.12			.14	.13		
친구 지지	.17	.14			-.10	-.13		
교사 지지	-.12	-.10			-.20	-.21		
상수	1.58				.87			
Durbin-Watson 계수	1.73				1.77			

*p<.05 **p<.01 ***p<.001 ****p<.0001

〈표 6〉 가정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신념 및 사회적 지지의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한 국				미 국			
	B	β	R ²	F	B	β	R ²	F
완벽지향성	-.11	-.13	.26	5.63****	-.10	-.12	.27	3.79***
타인인정집착성	.08	.09			.00	.00		
자기통제감상실	-.16	-.15			.43	.31**		
비관성	.38	.49****			.14	.13		
가족 지지	-.24	-.22**			-.21	-.20		
친구 지지	.03	.04			-.09	-.13		
교사 지지	.01	.02			-.02	-.02		
상수	.68				.92			
Durbin-Watson 계수	1.91				1.74			

p<.01 *p<.001 ****p<.0001

을수록, 가족의 지지 수준이 낮다고 인식할수록 가정환경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보다 강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아동의 경우는 자기통제감 상실수준이 높을수록($\beta=.31$) 가정환경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2개 독립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26%로 나타났으며, 미국아동의 경우는 1개 독립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아동이 경험하는 여러 유형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주요변인은 가장 먼저 비관성향이며, 다음은 타인인정 집착성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아동의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변

인은 한국아동에 비해 다양하게 나타나나, 그 중 자기 통제감 상실 변인이 비교적 주요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스트레스 유형별 대처행동

스트레스 유형별 대처행동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 유형별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대처행동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을 보면 통제강요 스트레스에 있어서 한국 아동의 경우는 회피적 대처, 기분전환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미국아동의 경우는 문제 중심 대처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표 7〉 한국과 미국아동의 유형별 스트레스와 대처행동간의 상관관계

대처행동	스트레스		통제강요		대인관계		자존심		가정환경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문제중심 대처	-.02	-.18*	.20**	-.03	.04	.16*	.09	.06		
회피적 대처	.33****	.05	.26***	.12	.21**	.08	.17*	.03		
기본전환	.19**	.05	.17*	.17*	.25**	.17*	.31****	.08		
지지추구	.06	-.08	.20**	-.07	.01	.11	.20**	-.02		

*p<.05 **p<.01 ***p<.001 ****p<.0001

있어서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 회피적, 기본 전환, 지지추구,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미국아동의 경우는 기본전환만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자존심 스트레스는 한국아동의 경우 회피적 대처와 기본전환, 미국아동의 경우 문제중심 대처와 기본전환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가정환경 스트레스에서는 한국아동의 경우만 회피적, 기본전환, 지지추구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4. 스트레스유형에 따른 대처행동의 효율성

스트레스 유형에 따른 대처행동들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문제중심 대처, 회피적 대처, 기본전환, 지지추구)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성취동기를 종속변인으로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강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들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다.

〈표 8〉을 보면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 대처

(β=.39)와 기본전환(β=-.20)이, 미국아동의 경우는 기본전환(β=-.34), 지지추구(β=.25)가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8%와 14%였다. 통제강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 대처행동을 할수록, 미국아동의 경우는 지지추구 대처행동을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지므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반면 두 문화권 아동 모두 기본전환 대처행동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행동들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표 9〉에 의하면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대처(β=.21)를 할수록, 회피적 대처(β=-.19)와 기본 전환 대처(β=-.26)를 덜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아동의 경우는 기본전환 대처(β=-.30)를 덜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17%와 11%였다. 따라서 한국아동의

〈표 8〉 통제강요 스트레스에 있어 성취동기에 대한 대처 행동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한 국				미 국			
	B	β	R ²	F	B	β	R ²	F
문제중심 대처	.20	.39****	.18	6.47****	-.11	-.12	.14	3.25**
회피적 대처	-.03	-.05			-.02	-.03		
기본전환	-.10	-.20*			-.26	-.34**		
지지추구	-.02	-.04			.15	.25*		
상수			2.65				3.37	
Durbin-Watson 계수			1.95				2.11	

*p<.05 **p<.01 ****p<.0001

경우,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긍정적인 적응을 돕는 효율적인 대처라 할 수 있겠다.

셋째, 자존심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행동들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 대처($\beta=.26$)를 할수록, 기본전환($\beta=-.33$)을 덜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나며, 미국아동의 경우는 기본전환($\beta=-.31$)을 덜 할수록, 지지추구($\beta=.22$)를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변수들의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0%와 13%였다. 이에 자존심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한국아동은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미국아동은 부모와 교사, 친구에게 지지를 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처라고 여

<표 9>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있어 성취동기에 대한 대처행동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한 국				미 국			
	B	β	R ²	F	B	β	R ²	F
문제중심 대처	.11	.21*	.17	5.74***	-.10	-.11	-.11	2.63*
회피적 대처	-.09	-.19*			.06	.08		
기본전환	-.12	-.26**			-.22	-.30**		
지지추구	.05	.14			.10	.18		
상수	2.94				3.19			
Durbin-Watson 계수	2.00				1.85			

*p<.05 **p<.01 ***p<.001

<표 10> 자존심 스트레스에 있어 성취동기에 대한 대처행동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한 국				미 국			
	B	β	R ²	F	B	β	R ²	F
문제중심 대처	.11	.26**	.20	7.43***	-.06	-.08	.13	3.13*
회피적 대처	-.02	-.04			.05	.08		
기본전환	-.16	-.33***			-.23	-.31**		
지지추구	.05	.12			.12	.22*		
상수	2.84				3.09			
Durbin-Watson 계수	1.89				1.91			

*p<.05 **p<.01 ***p<.001 ****p<.0001

<표 11> 가정환경 스트레스에 있어 성취동기에 대한 대처행동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한 국				미 국			
	B	β	R ²	F	B	β	R ²	F
문제중심 대처	.17	.39****	.22	8.07****	.00	.00	.09	2.16*
회피적 대처	-.12	-.27**			.02	.04		
기본전환	-.08	-.17*			-.18	-.25*		
지지추구	.01	.03			.09	.20		
상수	2.88				2.95			
Durbin-Watson 계수	1.96				1.86			

*p<.05 **p<.01 ****p<.0001

겨진다.

마지막으로 가정환경 스트레스에 따른 대처행동들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 대처($\beta=.39$)를 할수록, 회피적 대처($\beta=-.27$)와 기분전환($\beta=-.17$)을 덜 할수록, 미국아동의 경우는 기분전환($\beta=-.25$)을 덜 할수록 성취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성취동기에 대한 설명력은 각각 22%와 9%였다. 가정환경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한국아동은 문제중심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처라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 대처가, 미국아동의 경우는 지지추구가 성취동기를 높이는 효율적인 대처인 반면, 두 문화권 아동 모두에게 기분전환은 성취동기와 부적으로 관련된 비효율적인 대처로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아동이 스트레스 사건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신념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과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모색하기 위해 성취동기와 의 관계를 비교문화적으로 접근한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아동이 미국아동에 비해 타인인정 집착성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미국아동의 경우는 한국아동에 비해 자아 통제감 상실을 높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문화적으로 볼 때, 개인주의 특성이 보다 강한 미국 문화에 비해, 체면이나 눈치 등의 타인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한 우리 문화 특성(윤태림, 1969; 정순옥, 1980)이 반영되어진 결과로 여겨진다.

둘째, 아동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유형별로 즉 한국아동은 통제강요와 자존심 영역에서, 미국아동은 대인관계와 가정환경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한국아동의 경우에 나타난 연구결과는 지금수 외(1997), 이영환 외(1998)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하기 싫

은 일을 강요하는 스트레스가 미국아동에 비해 한국아동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강요가 주로 좋은 성적을 받으라는 강요 혹은 가기 싫은 학원이나 과외를 하라고 강요하는 내용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성적우선이나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반면 미국아동의 경우 한국아동에 비해 대인관계와 가정 환경영역에서 보다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한 결과는 잦은 별거나 이혼, 재혼으로 부모와 함께 살수 없거나 새로운 가족 관계의 형성, 만남에서 초래할 수 있는 부적응과 같은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이는 지금수 외(1997) 연구에서 미국아동이 한국아동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 항목이 전학과 이사에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미국 아동과 달리 한국아동의 경우는 모든 스트레스 유형에 대해 공통적으로 비관성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아동의 스트레스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타인인정 집착성과 가족과 교사의 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사회 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일등주의가 타인의 성취와 비교하면서 자신을 몰아가 불안과 무가치감에 빠지게하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재차 입증해주는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에 한국아동이 미국아동에 비해 전반적 자아가치감이 낮다는 이영환 외(199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타인을 의식하기 보다 자신의 소신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낙관적 사고를 가진 이로 성장하도록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게 하는 하나의 예방책이 될 것이다.

넷째, 한국아동이 미국아동에 비해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는 아동들 나름대로 문제중심 대처, 회피적 대처, 기분전환, 지지추구와 같은 여러 가지 대처 노력을 시도하는 결과는 신은영(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강요 스트레스나 가정환경 스트레스에 대해서 미국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를 해결해야할 문제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활동을 행하는 등 문제중심적 대처를 시도하는 반면, 한국아동의 경우 그 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나 오락이나 운동, 다른 놀이를 통해 기분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행동이 우울을 증가시키고 약물복용 등의 문제행동을 야기시킨다고 보고한 Ebato와 Moos(1991)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긍정적인 적응행동의 한 형태로 성취동기와의 관련성을 검증해본 바, 한국아동의 경우는 문제중심 대처가, 미국아동의 경우는 지지추구가 성취동기를 높이는 효율적인 대처행동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분전환은 두 문화권 아동 모두에게 성취동기를 낮추는 비효율적인 대처행동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신은영(1998)의 연구에서 기분전환이 우울 수준을 낮추어 효율적인 대처행동이 된다고 보는 견해와는 다르지만 Billing과 Moos(1984), Holahan과 Moos(1990)의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으로 대처할 때 보다 적응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견해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런 차이는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신은영(1998)의 연구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Billing과 Moos(1984), Holahan과 Moos(1987) 연구와 중학교 1, 2학년들을 포함한 본 연구 대상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연령이 높아갈수록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때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대처인 기분전환 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다 효율적인 대처행동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발달 연령이나 문화 환경적 차이를 고려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 방안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결론을 제시하며 아울러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평가와 다양한 반응은 아동의 개인적 신념에 의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의 높은 비관

적 신념을 보다 긍정적이고 합리적 신념체계를 형성하도록 지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에 대한 적절한 대처행동은 적응을 도와준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는 아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황과 개인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와 대처과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동일사건에 대한 대처행동을 반복 측정하는 종단적 연구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대처행동과 우울, 성취동기 이외의 다양한 적응행동과의 인과적 설명을 가능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설계를 통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김재환(1995).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 양식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 석사학위논문.
- 박선영(1993).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송의열(1995). 일상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 연구. 건국대 박사학위논문.
- 신은영(1998). 한국아동의 스트레스 대처모델에 관한 시도적 구성. 부산대 박사학위논문.
- 신은영·김경언(1996). 아동이 지각한 스트레스 사건,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 빈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 *대안가정학회지*, 34(4), 33-47.
- 윤태립(1981). 한국 사회에 조명된 한국인의 심리. *광장*, 3, 32-36.
- 이소은(1990).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아동 및 청소년의 대처방식.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한종혜, 박성욱(1998). 아동의 자기지각과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안가정학회지*, 36(12), 73-86.
- 이영환, 박성욱, 한종혜(1997). 자기-지각의 발달적

-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35(5), 261-273.
- 이현정(1997).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의 대처행동과 사회적응, 학업성취 및 행동문제. 인하대 석사 학위논문.
- 정순목(1980). 한국전통문화 속에 나타난 인간관. *광장*, 12, 20-23.
- 정승희, 정영숙(1996). 초등학생이 일상 생활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 측정 도구 개발. *전북대 논문집*, 42, 자연과학편, 237-243.
- 지금수, 이영환, 박성옥, 한중혜(1997). 한국과 미국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6), 261-273.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한미현, 유안진(1995). 한국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3(4), 49-64.
- Ayer, T. S. (1991). A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assessment of children's coping : Testing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State University.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 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illing, A. G. & Moos, R. H. (1984). Coping, stres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ults with bipolar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77-891.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Cohen, S. &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Cohen, F., & Lazarus, R. S. (1983). Coping and adaptation in health and illness. In D. Meadhanic(ED.), *Handbook of health, health care, and the health professions*, (pp. 608-635) N. Y.: Basic Books Inc.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DuBois, D. L., Felner, R. D., Brand, S., Adan, A. M., & Evans, E. G. (1992). A prospective study of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3, 542-557.
- Ebata, A. T. & Moos, R. H. (1991). Coping and adjustment in dist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Applied and Developmental Psychology*, 12, 33-54.
- Felner, R. D.,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 277-290.
- Felton, B. J. & Revenson. T. A. (1984). Coping with chronic illness: A study of illness controllability and the influence of coping strategie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2, 343-353.
- Folkman, S. (1984). Personal control and stress and coping processes: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839-852.
- Gavin, L. A. & Furman, W. (1989). Age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25(5), 827-834.
- Glaser, K. (1982).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resolution on student stress. *Today's Education*, 71(3), 59.
- Harter, S. (1980). *Manual for the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 University of Denver.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People in My Life*.

- University of Denver.
- Hewitt, P. L. & Flett, G. L. (1993). Dimensions of perfectionism, daily stress, and depression: A test of the specific vulnerability hypothesi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58-65.
- Holahan, C. & Moos, R. H. (1990). Life stressors, resistance factors, and psychological health: An extension of the stress-resistance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909-917.
- Honing, A. S. (1986). Stress and coping in children (part 1). *Young Children, 41*(4), 50-63.
- Kurdek, L. A. & Sinclair, R. J. (1988). Adjustment of young adolescents in two-parent nuclear, stepfather, and mother-custody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91-96.
- Lazarus, R.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 Y.: Springer Publishing Co.
- Lazarus, R. S. (1981). The stress and coping paradigm. In C. E. Eisdorfer, D. Cohen, A. Kellman & P. Maxim(Eds), *Models for clinical psychopathology*, (pp. 177-214). N.Y.: S. P. Medical & Scientific Books.
- Lazarus, R. S. & Choen. J. B. (1977). *Human behavior and environment*. N.Y.: Plenum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7). Transactional theory and research on emotion and coping.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 141-170.
- Pearlin, L. I. & Schooler, C. (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Rakow, L. (1987). *An annotated bibliography of literature dealing with helping children understand and cope with their stress*. South Bend: Indiana University.
- Riordan, E. Z. (1992). Locus of control and stress coping styles in primary school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he George Washington.
- Scheier, M. F. & Carver, C. S. (1992).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oretical overview and empirical updat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6*, 201-228.
- Schwartz, R. M., (1986). The internal dialogue: On the asymmetry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coping though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0*, 591-605.
- Wilcox, B. C. & Vernberg, E. M. (1985). Conceptual and theoretical dilemmas facing social support. In Sarason, I. G., & Sarason, B. R. (Eds.). *Social support :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 (pp. 3-20). N.Y.: John Wiley & Sons.